

18일 의협 집단휴진에...정부 "진료 거부는 불법" 엄정 대응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의료법 위반 "환자들 피해 커지면 조치 취할 것"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30년 가까이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 때문이라는 의협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의료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도 사직한 전공의들의 1년 내 재수련을 제한하는 지침에 대한 완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일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을 원할 경우 조기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외교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해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no show) 하면 안 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법정단체인 의협은 18일에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대의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집단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이날부터 의협까지 확대됐다.

전 실장은 "개원가의 휴진율에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의 근무시간 연장이나 비대면진료 활성화, 야간 약국 운영 등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현재 의협은 하루 휴진을 결정했는데, 나중에 휴진 기간이 길어져 비상진료체계에 부담을 주게 되면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을 지키기로 했으므로 당장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지만,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병이 더 위중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게 정부 탓이라는 의협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 실장은 "2000년 의대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가 요구한 것으로, 당시 관련 보도나 의협 보도자료 등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번번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동안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알립니다

제51회 광일보훈대상 영광의 수상자들 6월 27일(목) 오후 2시 정부광주지방법합동청사서 시상식

광주일보사는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제51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을 6월 27일 오후 2시 정부광주지방법합동청사 대강당에서 갖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유족과 전·공상 군경의 장한 삶을 되새기는 이번 행사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자(총 5명)
- 황영열씨(상이군경 부문·70)
- 임명화씨(중상이배우자 부문·61)
- 김인자씨(미망인 부문·77)
- 이말례씨(유족 부문·86)
- 박중정씨(특별 부문·83)

주최: 光州日報社 후원: 광주지방보훈청

'애플' 브랜드 가치 1조 달러...3년 연속 1위

삼성전자 51위 한국브랜드 유일

애플의 브랜드 가치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3년 연속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평가됐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절대강자 엔비디아는 브랜드 가치가 1년 새 거의 3배로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10위권 내에 진입했다.

영국의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칸타(Kantar)는 1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가장 가치 있는 글로벌 브랜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애플은 브랜드 가치가 지난해보다 15.4%가 상승한 1조159억 달러(약 1389조 원)로 평가돼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의 바론 미스라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꾸준히 제품과 서비스, 메

시지를 전달해 왔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공감을 불러와 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팬층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맥도널드가 애플에 이어 브랜드 가치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최근 AI 열풍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는 지난해보다 브랜드 가치가 178% 상승하면서 순위도 18계단 뛰어 6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비자, 페이스북, 오라클, 텐센트가 뒤를 이어 10위권을 형성했다.

한국 브랜드로는 삼성전자가 51위로 유일하게 100위권 내에 포함됐다.

칸타는 상위 100위 내 글로벌 브랜드의 총가치는 지난해 주식시장 급등에 힘입어 20%나 상승했다고 말했다. 칸타는 이번 조사가 전 세계 430만명의 2만1000개 브랜드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중국 일부지역 지표온도 70도 넘어...동부 폭염·가뭄 심각

중국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일부 지역 지표온도는 70도를 넘었다고 신경보 등 중국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중국기상국은 웨이보(중국판 엑스)를 통해 지난 12일 오후 허베이성 중남부와 산둥성, 허난성, 산시성 남부, 안후이성 북부 등지 지표기온이 60도를 웃돌았다고 일부는 70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지표온도 70도를 신발을 신지 않으면 화상을 입는 수준이다.

기상국은 며칠간 지표온도가 비슷하거나 더 오를 수 있다면서 시민에게 키가 작아 상대적으로 지표온도에 더 영향을 받는 아동 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중국 기상 당국이 보통 예보하는 기온은 지표면에서 1.5~2.0m 위 관측소에서 측정한 대기온도지만, 지표온도는 차폐물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한 지표면의 온도를 말한다.

여름, 특히 오후에 지표온도는 급격히 올라가 일반적인 기온과 차이가 크게 난다. 허베이성 기온이 42도까지 치솟는 등 중국은 찜통 더위였다. 이날도 오후 2시 기준 허난성 지위안과 위안이 나란히 41.7도를 기록했고 허베이성 한단, 허난성 평저우 및 뉘닝(이상 41.6도) 등 많은 지역 기온이 40도를 넘어섰다.

산둥과 허난성 등 동부 지역은 폭염에 심각한 가뭄으로 농작물까지 위협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영유아 수족구병 확산...6~7월 가장 위험

발진·발열·두통 동반...백신·치료제 없어 개인위생관리 철저 당부

광주에서 기온 상승 등으로 영·유아 수족구병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함께 지역 7개 의료기관에 내원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수족구병 등) 의심 환자 가검물을 대상으로 표본감시사업을 수행한 결과, 지난 4월에는 2건 중 1건이 발견되는데 그쳤지만, 5월에는 30건 중 24건이나 검출됐다.

수족구병은 기온이 상승하는 5월부터 증가해 6

~7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명이다.

주로 영유아(0~6세)가 감염되며, 대변·호흡기분비물(침·가래·땀 등)과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장난감 등을 통해 경구로 전파하는 특징이 있다.

대표 증상은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고 발열, 두통과 함께 설사,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워 탈수 증상이

오기도 한다.

수족구병은 약물치료를 하면 대부분 7~10일 내 회복되는 질병이지만, 드물게 뇌수막염, 뇌간뇌염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동반되기도 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고열·구토·무기력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유아에서 수포성 발진을 유발하는 원인 병원체 특성 분석 및 전파·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수족구병은 백신과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만큼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국성 천지에너지공력 발전사업 주인의권 수렴 공고

국성 천지에너지공력 발전사업의 주인의권을 수렴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계획서, 주민 및 본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 발진사업명: 국성 천지에너지공력 발전사업
- 발진사업 위치: 전남 곡성군 죽마면 신희리 산1-1, 분평리 산145, 산146, 산147, 산147-1, 산148, 산149, 산150, 산151, 산152, 산153-1, 산155, 산156, 산167, 산185, 산186, 산187-1, 미산리 산96, 산97, 산98-1
- 발진사업 면적: 6789㎡
- 발진사업 용량: 48MW
 - 공사계획기간: 2025년 12월까지
 - 사업준비기간: 2027년 12월까지
 - 사업용지 매입일: 2027년 12월
 - 사업운영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간
- 발진사업자: ㈜천지에너지
- 공고 사항
 - 국성 천지에너지의 주주 변경 예정 공고:
 - Vera Energy Renewables(Korea) Pte. Ltd. (국본 100%)
 - Vera Energy (Korea) Pte. Ltd. (국본 100%)
 - 사유: Vera Energy그룹 산하의 운영 자산 지배구조 개편 및 특수목적 법인 건의 자립과 운영 역량
- 발달 장소: (현)천지에너지 본관
 - 주 소: 전라남도 곡성군 무성읍 낙동로 113
-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의견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방법: 의견 제출이 가능 주소: 선진발전(주)에 방문하여 서류 작성으로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서면 제출
- 제출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로 100, 스페이브타워빌딩 25층 (Vera Energy 한국지사)
 - 팩 스: 02-6941-1660
 - 이메일: line-pro@veraenergy.com/veraenergy.com
 - 유선전화 문의: 02-6941-1610

지분, 물건 바로 삽니다

010-9552-7900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 매매

010-3605-5000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칼빌딩
840㎡ 바닥628㎡ 대형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2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나방**

광고문의 (062) 227-9600 | 신문구독 (062) 220-0551 | 예약구독 (062) 220-0550

光州日報 지역안내

- 북 구: 동 광 206-1620 • 동 용 209-1900 • 북광주 529-3761
신 안 222-8171 • 영 신 571-7858 • 오 치 266-7601
용 흥 433-1503 • 우 신 433-1503
- 중 구: 남 광 673-89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용 흥 222-9054 • 용 흥 222-8171
- 남 구: 남 부 673-8936 • 북 은 651-1833 • 봉 선 673-8936
용 흥 675-6605 • 진 월 671-7276
- 서 구: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은 원 376-7153 • 치 월 376-6511 • 동 알 603-0311
화 월 369-1625
- 광 산 구: 은 남 952-1687 • 월 광 959-1020 • 청 단 973-2900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